

# 姜시장·金지사, 한덕수 권한대행 맹비난

### 강기정 “탄핵심판 지연 꿈수…역사 앞 큰 죄”

### 김영록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위법”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맹비난하고 나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탄핵심판을 지연시

켜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총리는 구구절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시장은 “여야 합의 핑계를 그만두고 국회의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며 “역사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다”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고 위법이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에서 국회 추천 뒤편 헌법재판관 3인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월권으로서 헌법에 정하지 않는 절차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곧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지사는 “법리 해석과 여야의

견이 갈리는 문제라고 하면서 여야의 타협안을 만들어달라는 요청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요구”라며 “권한대행의 요청 자체가 법률적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 이는 곧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한 권한대행마저 갈 길을 잃고 흔들리면 국정이 흔들린다”며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바로 임명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재정·변은진 기자

###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준비 ‘착착’

전남도는 26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실·국장, 미식 산업 관련 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기본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선 총감독의 기본계획 및 세부 프로그램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지속가능한 미식산업박람회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미식과 유관 산업을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행사다.

올해 7월 기획재정부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고 기본계획, 세부 프로그램 등을 확정했으며 2025년 9월 개최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미식과 음식 관련 1~3차 산업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서재필실에서 열린 '2025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기본계획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을 통해 관광객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케이팝, 케이드라마에서 이제 케이푸드가 글로벌 트렌드

로 자리잡았고 남도음식은 케이-미식을 대표할 경쟁력이 있다”며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미식과 다양한 산업을 융합하는 점에서 그동안의 박람

회와 차별화되는 행사다. 지역 경제와 관광, 미식 생태계를 아우르는 박람회로 치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 GGM 주주단 “노사상생협약 준수를…파업시 강력 대응”

###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상생 약속…청년 일자리 가치 최우선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주주단은 최근 노사협상 결렬과 관련, 노조 측에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를 촉구하며 파업 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GGM 주주단 36개 사는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회사의 설립 근간인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지역 경제와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주주단은 “회사의 근로자, 경영진, 주주사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은 노사

상생발전협정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노사민정협의회 절차를 통해 노사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주단은 “누적 생산목표 35만대 달성 시까지 노사 상생이 이어간다는 약속을 믿고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다”며 “주주들의 투자 결정의 전제 조건인 협정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경영진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주단은 또 “GGM은 2021년 9월 첫 차량을 생산한 이후 7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

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노동조합의 노사협상 결렬 선언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은 지금까지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일”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특히 주주단은 “광주시민 세금 2%를 포함한 지역에서 65%의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협정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추가 생산 물량 확보는 물론, 20만대 생산기지 구축도 무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주단은 광주시에 노사민정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연계형 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준수 여부를 감시해야 하고 민주노총은 청년 일자리를 늘리려는 지역사회의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무엇보다 주주단은 노조 파업으로 회사 운영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GGM 노사는 지난 10월부터 7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왔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차례 조정 회의 끝에 노사 간 견해 차가 커 지난 23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변은진 기자

# 전남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신청하세요”

### 내년 1월7일까지 접수…2개 분야 600개소 선정

전남도는 26일 “2025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에 참여할 공동체를 내년 1월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주민이 주체가 돼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에 거주하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이나 단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사업은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 2개 분야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마을돌봄’ 문화를 형성하고 공적 돌봄의 빈틈을 채우는 사업이다. 개소당 500만원 안팎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00개소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나이·소득·성별에 제한 없이 공동 식사, 방과 후 아동 돌봄, 간단한 생활 수리, 의료 연계 돌봄, 어르신 장보기 동행 등 마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돌봄 사업을 공동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은 공동체의 형성 단계에서 자립 단계까지 성장 수준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는 20개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씨앗’ 단계는 마을 활동 초기 구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며 ‘새싹’ 단계는 공동체 발전을 위해 최대 1천만원을, ‘열매’ 단계는 자립기 반 마련을 위해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김재정 기자

# 광주 캐릭터 ‘빛돌이’ 이모티콘 무료 배포

### 오늘부터 카카오톡 선착순 5만여명

광주시는 26일 “연말연시를 맞아 캐릭터 ‘빛돌이’를 활용한 이모티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2시부터 광주시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캐릭터 ‘빛돌이’와 여자친구 ‘빛나영’을 활용한 이모티콘 16종을 선착순 5만명에게 무료배포한다.

‘빛돌이’ 이모티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화이팅’ 등 재치있는 표현의 움직임이 있는 이모티콘 16종이다.

이모티콘은 카카오톡 친구 메뉴에서

‘광주광역시’를 검색해 채널 추가하면 받을 수 있고 기존 친구는 친구 취소 후 채널을 추가해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모티콘은 다운로드 후 30일간 사용할 수 있다.

광주시는 이모티콘 이벤트 홍보를 위해 2025년 1월10일까지 광주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채널에서 ‘빛돌이’가 준비한 이모티콘&키링 받고 빛나는 새해 보내세요’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빛돌이 이모티콘을 사용한 후 이벤트 응모하면 KIA타이거즈 광주FC 유니폼을 입은 빛돌이 인형 키링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변은진 기자

# 광주시 ‘내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

광주시는 26일 “내년 9월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966년 제1회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인 축제다.

광주시는 1980년, 1992년, 2009년에 이어 16년 만에 4번째 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내년 9월20~26일 7일 간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공고, 전자공고, 전남공고, 광주자연과학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 고용노동부, 광주시교육청

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대회에는 각 시·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참가자격을 획득한 선수들이 참가한다. 전국 17개 시·도 선수,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만8천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총 50개 직종에서 국내 최고 기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며, 3위 이내 입상자들에게는 상장, 메달과 함께 최대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변은진 기자

##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